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018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정 미 영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정 미 영


인 준 서

정미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 이 유 나  (인)

심 사 위 원 김 유 진  (인)

심 사 위 원 김 경 리  (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대인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폭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화장’도 미적인 기능으로만 이해되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심리적, 신체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생애주기에 여성으로서 내·외적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하며, 인구증가와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40~50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화장행동은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과시성, 주관성, 자존감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조화하였고,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긍정적 2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대인관계는 개방성, 친근감, 만족감, 이해성, 의사소통, 민감성, 신뢰성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조화하여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직업, 월평균수입, 월평균화장품 구매비용, 갱년기, 폐경, 자녀의 유무 등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8년 3월 28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년기 여성 40대 166명, 50대 184명을 조사대상으로 총 350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 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0~50대 중년기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인구분포로는 40대가 48.0%, 50대가 52.0%로 50대가 좀 더 많았고 결혼 여부는 기혼이 86.6%로 미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5.7%, 대학교 졸업 42.3%로 조사되었고, 직업은 회사원이 24.6%, 전업주부가 20.9%로 나타났다. 월 평균 화장품 구매비용은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35.1%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은 200~25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갱년기와 폐경에 관한 설문은 경우, '갱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60.9%, '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64.6%로 갱년기와 폐경을 경험한 비율이 조사대상에서는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둘째, 각 변인의 요인분석에서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전체 신뢰도 계수에 있어서 화장행동 0.784, 자아존중감 0.852, 대인관계 0.906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연구 결과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의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과시성과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미 하였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의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과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 중 개방성에서는 화장행동의 동조성, 과시성, 주관성에, '친근감'에서는 도구성, 유행성, 주관성에, 만족감에서는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자존감에, 이해성에서는 도구성, 유행성, 자존감에, 의사소통에서는 도구성, 유행성, 과시성, 주관성에, 신뢰감에서는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과시성, 주관성에서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의 도구성에서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지향에서 필수라는 인식 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인식의 도구적 수단으로써 화장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화장행동의 도구성, 유행성, 과시성, 주관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대인관계 요인 중

개방성이 높을수록 화장행동의 주관성과 자존감을 중요시 했으며, 친근감이 높을수록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주관성, 자존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요인 중 만족감이 높을수록 유행성을 중요시하였고, 이해성이 높을수록 도구성, 유행성을 중요시 하였으며, 의사소통 욕구가 높을수록 화장행동의 도구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인관계의 민감성이 높을수록 동조성, 유행성, 주관성, 자존감을 중요시 하였다. 특히 대인관계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화장행동의 모든 요인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높을수록 화장행동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친근감, 만족감, 이해성, 민감성, 신뢰감을 중요시 했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이해성과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의 각 하위요인들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추가하여 실시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대인관계 요인 중 개방성과 민감성을 제외한 친근감, 만족감, 이해성, 의사소통, 신뢰감에서 $p < .05$ 이상 수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β 의 크기 비교에서도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화장행동은 대인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 되는 것으로 부분매개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40~50대 중년기 여성들의 화장행동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는 중년기 여성층의 인구 분포 증가와 사회적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대이다. 특히 40~50대 중년기 여성은 심리적,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인관계의 확장과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기 여성들이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자존감의 상승과 함께, 확장된 대인관계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중년기 여성	4
2. 화장행동	9
3. 자아존중감	14
4. 대인관계	18
III. 연구방법	23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23
2. 측정도구의 구성	23
3. 자료분석	26
IV. 연구결과	27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7
2.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대한 요인분석	29
3.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간의 상관관계 분석	38
4.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40
5.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분석	48
V. 결론	59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23
<표 2> 각 변인에 대한 설문지 구성	25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분포	28
<표 4> 화장행동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32
<표 5> 자아존중감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34
<표 6> 대인관계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37
<표 7>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간의 상관관계 분석	39
<표 8>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41
<표 9>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44
<표 10>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47
<표 11>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개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49
<표 12>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친근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51
<표 13>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만족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52
<표 14>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이해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53
<표 15>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의사소통에 미치는 매개효과	54
<표 16>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민감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56
<표 17>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신뢰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58

I. 서론

현대 사회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경제와 문화 의식 등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내·외적 측면에서 다양한 동기부여와 행동을 유발시킨다.

특히,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중년기에 속한 여성들은 노화에 대한 생물학적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젊음과 활력 그리고 매력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 급속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오세진 외 10인, 2016). 이러한 이유로, 중년기 여성들은 자신감 회복과 안정감 있는 자아를 찾기 위한 다양한 운동, 패션연출, 화장, 성형 등을 통해 외모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를 갖게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환적 행동을 하게 된다.

‘화장’은 자신의 외모를 보다 매력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미적 추구로,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인관계에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의사전달 및 자아개념 개선과 강화의 수단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박은아, 2003).

이렇듯 높아진 외모의 위상을 볼 때, 내용을 중시하고 형식은 겉치레로 치부하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 우리사회는 외형이 중요한 시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력자본’인 외모를 가꾸기 위한 화장행동은 길어진 중년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강성곤, 2018). 즉, 화장행동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으며 중년기의 새로운 변화를 대처하는데 있어 중요한 행동 요소임에 틀림없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연령대별 여성인구는 40대가 16.3%, 50대가 16.1% 순으로 전체 여성 연령 인구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 10

년간 여성의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 45~54세 여성 고용률은 타 연령층의 여성 고용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2016). 이는 40~50대 여성들의 가계소득 정체와 불안한 노후 준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시대가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환적 시기임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중년기 여성은 평균수명의 연장, 자녀 양육기간 단축, 여성 고등교육의 보편화, 생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자아성취, 정체성 재확립이라는 새로운 내적동기를 경험한다. 또한 중년기에 찾아오는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아성찰 및 심미적 이미지 구축과 차별화된 자기연출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전환적 생애주기를 갖게 된다(박금자, 1999).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화장행동과 같은 외모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된다. 화장행동에 관하여는 조은(2003)의 연구를 통해서도 외모 만족도 변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개인의 자신감 회복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장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화장행동의 탐색이나 산업분야와의 연관을 통한 시장 확장 측면에서 논의 되었고, 화장품 선호도(김철수, 문정혜 2005), 자아인식이나 얼굴 만족도에 따른 화장행동(김현희, 김용숙 2007), 화장에 대한 인식과 구매행동 실태(최수경 2007, 박은희, 구양숙 2011, 김현희, 유태순 2002) 등의 논문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국내의 화장행동 연구는 대부분 마케팅이나, 화장품 개발, 화장품 구매행동 등 산업분야와 연관된 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요한 삶의 생애주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자존감이나 사회참여시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의학의 발전 및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기대수명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임계

윤, 2012),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도 중년기 여성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산업적인 접근 이외에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자존감과 대인관계를 규정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생애주기 가운데 내·외적 변화를 가장 많이 겪으며,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40~50대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산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중년기 여성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여성

1) 중년기의 개념

중년기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40대 전후의 나이로 청년과 노년의 중간사이 즉,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 인간의 성인 단계를 말하며(민중에센스 국어사전, 2011, p.175), 여성의 경우 인간발달의 전 생애에 걸쳐 연속적 변화 과정으로써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한 신체적·생물학적 인식과 역할에서 점차 분리되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정의한다(안수옥, 2014).

중년기는 인간발달의 변화과정으로 아동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구분단계로써 19세기 이후 성인발달이론에 의하여 특성이 밝혀지면서 최근에 이르러 인생주기의 중요한 시기로써 연구되고 있다(오세진 외 10인, 2016). 그러나 인간발달은 환경과 심리에 의해 상호작용하며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적인 특성, 연령 관련 변화를 통해 달라진다. 따라서 중년기에 대한 범주나 견해는 각 나라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박진경, 2007).

중년기에 대한 이론을 최초로 발전시킨 학자는 칼 구스타프 융(Carl G. Jung)이다. 융은 삶의 주기를 ‘아침’과 ‘오후’라는 두 기간으로 설명하고 인생의 오후인 중년기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써 외적인 세계에서 내적인 가치로 전환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김남연, 2013). 이는 생리적·심리적·사회적 변화를 크게 겪는 혼란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시기라는 것이다(오창순 외 3인, 2015). 즉, 인생의 제 2막을 펼치기 위한 또 한 번의 탐색기로 정의한다.

중년기에 관한 시기설정은 선행연구에서 생활연령, 심리적 연령, 생물학적

연령, 사회적 연령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계이론에서는 중년기를 제시해 주는 지표로 생활연령을 사용하여 시기를 설정하고 있다(박진경, 2007; 서보현, 2000). 그러나 최근 들어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중년의 범위를 규정하는 생활연령 지표는 나라와 학자마다 유동적이다(이명신의 8인, 2015). 따라서 중년기의 연령범위는 연구자마다 40~70대까지 매우 다양하게 정의한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45~59세, 미국 통계국은 45~64세로 정의하고(김명자, 1988, 이경숙, 2012 재인용), 최근 새로운 생애주기별 연령지표를 발표한 유엔은 66~79세를 중년기라 하였다(송은주, 2017, p.231).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김명자(1988)는 40~59세, 김경애(2003)는 40~55세, 손영익(2005)은 35~60세, 이영아(2007)는 40~59세를 중년기로 설정하고 있다. 2000년도에 들어서는 60세까지를 중년으로 포함하였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중년의 범위를 65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다(정수정, 2017).

이처럼 중년기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사회현상과 실정법상 노년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40~65세 미만의 연령을 중년기 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중년기 여성의 신체·심리적 특성

중년기의 여성들은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체변화를 통해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시기로, 신체변화는 전 생애를 통해 일어나지만 중년기 여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옥분, 2004).

특히, 이 시기는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릴 만큼 심리적 공허감과 신체적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신감 상실, 대인관계 위축 현상으로 전이되기도 한다(성미혜 외 2인, 2005).

신체적 특성으로는 갱년기와 폐경을 경험하게 되면서 보이는 신체적 변화 증상을 들 수 있다. 갱년기는 폐경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배란과 월경이 중단되어 출산능력이 끝나는 45세에서 60세 사이에 변화기간을 말하며, 폐경을 전후한 10년 정도를 갱년기라 말한다(김명자, 1988). 이 기간에는 생산성과 침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시기로 노화에 대한 생물학적 변화를 느끼게 되며(김혜란, 2006), 대부분의 여성들은 폐경에 의한 피부노화, 체형 불균형, 홍조현상 등 달라진 외적 변화를 통해 ‘노화’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다(이인정, 최해경 2008; 서순희, 2012). 특히, 이 시기는 호르몬 불균형과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콜라겐 합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주름, 잡티, 기미가 심해지는 피부 노화현상과 불안, 우울, 허무감, 분노감, 대인관계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불안을 경험한다(서순희, 2012; 이명신 외 8인, 2015, p116).

최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2~52세 중년기 여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갱년기 여성의 만성질환 추적관찰 연구에서도 폐경 이행기 전기 단계의 여성은 폐경 전 단계의 여성보다 주요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진 외 6인, 2017).

이처럼 중년기 여성은 갱년기 기간에 내·외적으로 신체적인 변화를 겪으며 노화에 대한 생물학적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기분의 변화, 활력의 상실, 신체적 매력의 상실, 불면증, 각종질환 등 심리적·신체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오세진 외 10인, 2016).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들의 성장과 독립으로 자녀에 대한 통제에 한계를 느끼거나 부모역할이나 권위가 감소하면서 심리적인 균형이 깨지고 부모로서 정체감이 흔들리게 된다(김영자, 1988). 특히 부모역할 중심으로 심리적 투자를 강하게 해 온 여성은 심각한 삶의 회의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을 갑자기 상실한 것 같은 허무한 의미상실의 위기를 겪게 된다(김은심, 배행자, 1996).

김현숙(2015)의 중년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와 남편, 노부모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여성일수록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자녀 독립에 따른 역할의 변화, 남편의 은퇴, 노부모 부양, 가족이나 친구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부정적 견해, 중요한 지지관계 상실 등을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위기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란, 2006).

이와 같이 중년기는 심리적 혼란을 겪으며 스스로 자아를 찾게 되는 인지적 변화를 겪게 되고 가족 위주의 사고와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래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제2의 정체성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김은희, 2009).

또한 과거 중년기 여성들과는 다르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긴 경력단절 여성일수록 삶에 대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직업의 탐색, 새로운 여가활동 등을 찾아 삶의 활력을 찾고 경력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성공, 또는 좌천이나 해고를 경험하면서 인생구조와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이명신 외 8인, 2015).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위기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학자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중년기를 ‘전

환기'로 간주한다(이인정, 최혜경, 2008).

최근 노년을 대비하는 중년기 여성의 전환적 태도를 보여주는 여러 기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년기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성장 회복을 위한 시각에서 2007년 조사한 '대한민국 여성 소비자'에서 50세 이상의 여성들이 과거의 소극적인 양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이경숙, 2012). 또한 아모레 퍼시픽이 조사한 45~65세 라이프 스타일 및 미용행태 관련 소비자 결과 보고서에도 '나는 아직 여자이고 싶다.', '나의 외모와 건강을 위한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다.', '나는 활동하고 싶다.' 등 중년을 전환점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아모레퍼시픽, 2006).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는 중년으로서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년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꿈·자아상실'에 더 많은 상실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신 외, 2015). 따라서 오늘날 중년기 여성들은 현대사회의 길어진 수명을 인식하며 신체·심리적 불안감으로 안주하기 보다는 자신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운동, 식이요법, 패션연출, 화장, 성형 등 적극적 변화의 전환적 행동을 하게 된다(이경숙, 2012).

특히 중년기 여성에 있어서 화장행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예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긍정적 모습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감 회복 및 대인관계 향상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행동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년기 여성은 자신의 역할과 관계적 영역에서 신체·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위한 전환점으로써 미래를 계획하고 수행하며(박현옥, 2016), 다가올 노년기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2. 화장행동

1) 화장행동의 개념

화장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동아새국어사전, 2005, p.184) 이라고 하고, ‘분 또는 연지를 발라 얼굴을 곱게 매만지는 일’(국어대사전, 1994, p.4442)로 풀이되고 있으며, 인간의 미의식이 작용하면서 자아 속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화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행동을 화장행동이라 정의한다(김현희, 유태순, 2001).

인간의 화장행동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시기와 동기를 밝히는 일은 고대와 현대의 화장 형태가 달라 확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도품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화장의 기원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신분·계급을 나타내는 수단, 또는 종교적인 필요성으로 태곳적부터 치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자들은 화장의 기원에 대해 인류의 생존과 같은 시기라고 말한다(네이버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229&cid=40942&categoryId=32160>, 검색일 : 2018. 1. 9.).

이러한 화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변모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 의미를 달리하며, 오늘날에는 모든 여성의 일상생활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현주, 1999).

오늘날 화장의 역할로는 미적 역할, 보호적 역할, 심리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역할은 마음에 만족감과 활동에 활력을 생기게 하며, 화장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 화장행동에 의한 안심감이라는 기능과 변신요망 등에 대한 만족감으로써의 기능적 역할로 해석된다(김주덕 외, 2015, p.478).

이처럼 화장역할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화

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행동을 말하며,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화장은 비언어적 의사전달 수단이기도 하다(김현희, 2001). 또한 화장행동은 대인적 적극성을 높여주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해준다(박은아, 2003).

한편, 우리나라 전통 화장문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선천적 자신의 용모를 그 시대, 그 문화권 내에서 필요에 따라 선별·선호·선택된 미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꾸미는 일을 말한다고 정의하기도 한다(이경자, 송민정, 1990).

이는 과거의 화장행동은 아름다움을 향한 본능적인 욕구 충족의 측면에서 파악되던 것과 달리 현대에 들어와서는 각 개인이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타인을 위한 배려, 건강함의 표출, 결점 감추기를 통한 심리적인 안정감 등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조은, 2003).

따라서 현대의 화장행동은 신체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장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 작용 시 의사전달의 수단,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수단, 사회적 인정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인식하려는 사회적 수단으로써 화장행동이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김현희, 유태순, 2002; 조안진, 2014).

이상에서 살펴보면 화장행동은 인류의 생존과 더불어 태곳적부터 시작되었으며 미적, 보호적, 심리적 역할로써 사회심리학적으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즉, 의사전달수단이며,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개선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인식하려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화장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현대 사회는 타인과 빈번한 교류와 안면 인지를 통한 대인관계의 연속이다. 따라서 화장품 산업과 대중매체가 발달한 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 화장

이나 화장행동, 화장품 산업에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화장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화장품 선호도(김칠수, 문정혜 2005), 자아인식이나 얼굴 만족도에 따른 화장행동(김현희, 김용숙, 2007), 화장에 대한 인식과 구매행동실태(최수경, 2007, 박은희, 구양숙, 2011, 김현희, 유태순, 2002) 등 화장행동의 탐색이나 산업분야와 연관된 시장 확장 측면에서 논의 되었다.

다른 관점의 화장행동 연구에서는 화장행위 만족도와 대인관계성향(배주윤, 2003),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배은희, 2015),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최수경, 강경자, 2007), 성격과 여성의 화장심리(박선희, 2008) 등 자기만족감의 추구나 자신의 자아감각을 높이는 이미지 추구, 여성의 화장심리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이 화장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존중감과, 나아가 대인관계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이에 관련된 연구들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화장심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현숙(2001)은 30~4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행동과 관련해서 심리적 요인이 화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리적 요인으로 화장 후 활동 성향, 자기표현 욕구, 화장의존도, 유행 등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할 결과 자기표현욕구와 활동 성향이 크고 자기표현 욕구가 강할수록 화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기범, 차영란(2006)의 연구에서도 한국 문화에서는 여성의 화장의미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행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 역할이나 맥락을 고려한 자기표현 또는 인상관리의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은아(2003)는 화장의 심리·사회적 의미 연구에서 화장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내적 욕구실현을 위한 개인적 행동일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써 의미가 강한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는 여성이 화장함으로써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재구축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며,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화장행동은 자기를 표현하는 동시에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고 사회성을 높이는 행동요소임을 알 수 있다.

조안진(2014)은 20~5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화장의 사회 심리적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40대 여성들이 화장의 사회 심리적 효과에 높은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이 삶의 목적과 환경 통제력,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개인적 성장에는 자신감 보완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화장행동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의사전달의 수단이 되며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개선시키는 수단으로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김선우, 이유리, 2002).

따라서 중년기 여성들이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심리적 환경에 처하게 되고, 매력을 발산시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에 의존하게 되는 화장심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이현정, 2002).

화장을 대인관계 관점에서 연구한 백경진과 김미영(2004)은 유행지향성, 대인관계중시, 관습지향, 최소 화장 및 피부 관리, 자기 만족감의 5가지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화장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대인관계지향에서는 40~50대의 집단에 가장 두드러지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2003)은 여성들의 화장행동이 대인관계 및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화장행동은 외모자신감에 많은 변화를 주는 행동으로 화장 전 전체 여성의 62%가 자신의 외모를 보통이상 수준으로 인식하는 반면, 화장 후에는 조사 대상자 91%에서 외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중년기 여성들은 화장행동의 목적을 대외적인 책임이나 활동을 위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대인관계의 적극성, 심리적 안정감 및 의욕에 영향을 미친다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을 위한 예의의 수단으로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현희, 김용숙(2007)은 중년기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얼굴만족도와 화장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중년에 접어든 여성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근하면서 심리적 위기감을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외모에 많은 관심과 비용을 투자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는 평범하고 전통적인 아줌마이길 거부하고 아름다움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것으로써 2014년 대한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발표에서도 40~50대 중년기 여성들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중년기 여성들의 화장행동은 자신의 외모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과 수단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기대수명이 길어진 가운데 확장된 중년기 삶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기대수명이 확장된 가운데 단순히 미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화장행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자존감 향상과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용어는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1890년대에 처음 사용하였으며(신중순, 1991), 자기존중감(self-esteem)은 넓은 의미에서 자기사랑(self-love), 자기확신(self-confidence), 자기존경(self-respect),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아평가(self-evaluation), 자기가치(self-worth)등과 유사하게 지칭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self-concept)이다(최덕신, 1992).

즉 자기 자신을 존중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인적 신념의 범위를 포함한 심리적 반응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상희, 2010).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 스스로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자기존중이며, 자기존중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뜻한다(너새니얼 브랜든, 2015, p61).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 간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는데, 로젠버그(Rosenberg)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이라 정의하고, 쿠퍼스미스(Coopersmith)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로써 자신의 능력과 성공 등에 대해 스스로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치판단’이라 정의했다(Rosenberg, 1965; Coopersmith, 1967; 이상희, 2010, 재인용).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주요한 다섯 가지 욕구 중 한 가지로 인간이라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보

고, 개인이 자신을 관심, 인정, 존경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을 자아존중감이라 명명하였다(Maslow, 1974, 고선형, 2015,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아존중감은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성장과정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자기 이미지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기사랑, 자기확신, 자기존중, 자아수용의 가치판단이며, 자신의 가치 확신에 대한 내적 경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의 선행연구

본 연구의 대상은 중년기 여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변인의 개념을 탐색하고자,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최은숙(2012)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메이크업 테라피의 효용성 연구에서 성인 여성은 생리적 노화가 시작되며 자신감 결여와 우울감을 느끼는 시기로 메이크업 테라피를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음으로써 대인관계 개선 및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는 화장을 통해 변화된 외모 만족감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 및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경쟁력으로 길문정 외(2017)도 중년여성의 외모관리 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년여성의 외모 관심 정도 및 외모 영향력을 알아보았는데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은숙의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문혜경, 유태순(2003)은 자아존중감, 외모 관심도와 의복 태도 및 화장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유행을

선도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존감이 높은 여성들의 특징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빠른 시기에 의복을 채택하여 자기다움을 표출하고 싶어 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이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자신감과 이상이 높아 유행을 선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허정화(2016)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40~50대 중년여성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 얼굴이나, 피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가치에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황윤정(2007)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체매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외모관리행동에서 남학생은 헤어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들은 얼굴관리, 의복관리, 체중관리에 더 많은 사회문화적 태도를 보였다.

허정록, 김선형(2012)은 미용요법이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색채진단, 화장연출, 코디연출, 헤어연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3주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화장연출은 자아존중감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행연구가 입증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생애 중후기를 겪는 중년기 여성 집단의 심리적 건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화장에 따른 자아존중감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윤민지(2017)는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이 미의식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여고생의 올바르고 선진화된 화장 문화 형성과 부모 세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여고생의 심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있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의식 형성 및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심적 자아존중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윤희(2016)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가치관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가치관을 정립하고 내면화하는 심리 상담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주관적 행복감이나 자아존중감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허한형(2017)은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의 차이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외모는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심리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결혼, 육아 등으로 하락했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0대 초반부터 다시 증가할 뿐 아니라 50~54세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비율은 2012년에 62.3%로 2000년에 비해 7.0% 증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2). 또한 2011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40~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45.3%로 1995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20~30대를 추월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현대는 40~50대 중년여성이 왕성한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서울시, 2011).

이처럼 경제활동에서 넓은 범위를 차지하게 된 중년기 여성들은 내·외적 변화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기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중년기 여성에게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4. 대인관계

1) 대인관계의 개념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며 타인과 다양하고 무수한 관계를 맺게 된다. 대인관계는 인간적인 측면에 깊은 관심을 두고 주관적 측면이 고려된 관계를 말한다(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즉 흔히 사용되는 인간 관계는 인간과 인간 상호 관계의 심리적 관점에서 모든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인간관계와는 구별된다(한광희, 1986, 배연희, 2011, 재인용).

대인관계는 기본적으로 자기와 타인들로 구성된다. 개인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인관계라는 것은 개인이 편한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형성·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심적 작용이 무리 없이 기능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형미, 2011).

대인관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달리 정의되고 있다. 형태주의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또는 어떻게 지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의미한다. 또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 그리고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대인관계 국면이라고 하였다(Heider, 1964, 배연희, 2011, 재인용).

신 프로이트 학파가 주장한 대인관계는 ‘만족의 추구’와 ‘안전의 추구’를 하기 위해서 하며, 대인관계가 불안할 시에는 가학성, 파괴성, 고착 등의 기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노선옥, 2011). 형태주의 학파에서는 형평을 유지하는 것을 대인관계의 목적으로 보았으며 실존주의적 입장에서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종합적인 인간, 주체성의 확립에 두었다(이혜성, 1982).

인본주의에서는 개인 각자 가지고 있는 시각의 차이로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태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사회적응과 자아실현, 자기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노선옥, 2011). 반면, 상징적 상호주의 학파는 대인관계는 사회적 소산으로 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안범희, 1985).

사람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요소(커뮤니케이션, 자기 개방), 비언어적 요소(시선교환, 표정, 몸짓, 웃음), 환경 지향적 행동(사적 공간과 물건의 사용, 대인적 거리) 등이 교환된다(김문수, 2004). 그리고 이러한 교환이 피상적 수준에서 더욱 친밀한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인관계가 발전하게 된다.

이렇듯 대인관계란 한 사람이 자신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과 맺고 있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며(배연희, 2011), 인간 상호간에 있어서 본성이나 직접적 접촉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내면적·감정적인 인간 대 인간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한간호학대사전, 1996, p.87).

2) 대인관계 관련 선행연구

대인관계는 자아실현과 사회적 적응을 목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람의 외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의 외모는 그에 대한 인상형성에 대한 영향을 주며 타인과의 효과적인 인간관계 정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외모와 관련된 연구는 심리학과 미용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대인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 살펴보면, 배주윤(2003)는 20~30대를 대상으로 화장행위의 만족도와 대인관계 관련성 연구에서 화장을 함으로써 자

기충족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화장의 가치를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아름다움에 두는 여성의 경우 화장도가 높고 화장행위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대인관계 성향에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려는 인간의 욕구로써 화장은 여성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수단의 역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은(2003)은 20~40대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화장만족도에 따른 대인관계와 심리적 안정감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화장 만족 여부에 따라 대인 관계의 측면에서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 전 전체 여성의 62%에서 외모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화장 후 조사 대상자 중 91%는 외모에 대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인여성의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에 우호적이며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규리(2016)는 중년여성의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추구 이미지, 외모 및 패션에 대한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신체외모나 의복차림이 매우 중요한 도구임을 인지하며, 신체적인 결함을 보완하면서 현재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경진과 김미영(2004)의 연구에서는 화장행동을 대인관계중시, 유행지향성, 최소화장 및 피부관리, 대인지향, 자기만족감의 5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한 결과 연령에 따라 화장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에서는 유행지향성이 가장 높았다면, 대인관계지향에서는 40~50대 집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대인관계에서 신체외모 및 패션의 중요성이 20~30대를 넘어 중년여성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며 특히 40대 이후 중년기 여성은 타인

과의 상호작용시 중요한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연희(2011)는 얼굴 이미지 효능감이 긍정적 사고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얼굴 이미지 효능감과 긍정적 사고 및 대인관계가 높은 상관관계가 보였다. 이는 얼굴 이미지 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사고 및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얼굴 이미지 효능감의 하위요인이 대인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신의 얼굴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이미지 관리 능력이 뛰어나 자신뿐 아니라 대인관계를 맺는 상대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고 하였다.

장봉실(2017)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외모만족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며, 대인관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정명선(2008)에 의하면 중년기 여성에 있어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젊은 여성 못지 않게 많아서 다양한 외모관리는 생활에 활력을 주며 외모개선에 도움을 주므로 원만한 대인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형미(2011)은 외모 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더욱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타인을 대한다고 하였다.

이는 타인의 장점과 매력을 찾아보며 서로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허한형(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의 차이분석을 통해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관계에서 세 변인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외모에 대한 불만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형성된 경우에 대인관계에서도 낮은 수준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희선(2015)은 외모로 인한 우울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대인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모든 연령층에서 화장행동은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에서 첫인상을 결정하며,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서적 안정과 적극적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년기 여성들은 신체외모나 화장만족도에 따라 대인관계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40~50대를 대상으로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2018년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3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65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의 많은 부분이 누락된 설문지를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5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연구 분석에 350부가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을 정리한 것은 <표 1>과 같다.

<표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조 사 대 상	40~50대 중년기 여성
자 료 수 집	설문지기법
조 사 기 간	2018년 3월 28일 ~ 2018년 4월 20일
배포 및 회수	- 배포한 총 설문지 : 380부 - 회수한 설문지 : 365부 - 제외된 설문지 : 15부 -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 350부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40~50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 기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지 문항은 일반적 특성 9문항, 화장행동 28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대인관계 25문항 등으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총 문항 수는 72문항으로 명목척도가 사용되었다.

1) 화장 행동

화장 행동은 최수경, 강경자(2007), 최정순(2015), 박정자, 김미영(2004)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성, 유행성, 주관성, 동조성, 과시성, 자존감의 7가지 요인을 포함하여 본 연구와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질문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RSES)를 최정아(1996)가 번안하고 강미정(2014), 고선형(2015)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긍정적, 부정적 2가지 하위요인을 본 연구와 목적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하였다.

3) 대인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은 Schlien(1971)가 개발하고 Guerney(1977)가 활용한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문선모(1980)가 번안하고 전석균(1995) 이주미(2017) 박선아(2005)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개방성, 친근감, 만족감, 이해성, 의사소통, 민감성, 신뢰감 7가지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하였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40~50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부터 대학원 졸업이상까지의 나이, 결혼상태, 최종학력, 직업, 수입, 화장품 구매 비용, 갱년기 여부, 폐경 여부, 자녀 여부 등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총 9문항으로 명목척도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모든 척도는 선택형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변인에 대한 설문지구성과 문항수는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각 변인에 대한 설문지구성

변 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출 처	척도유형
화장행동	도구성	1,2,9,10	4		
	유행성	3,4,5,11,12	5		
	대인지향	6,7,13,14	4	박경자,김미영(2004)	5점
	동조성	8,15,16,23	4	최수경,강경자(2007)	리커트형
	자존감	20,21,27	3	최정순(2015)	척도
	과시성	19,24,26	3		
	주관성	17,18,22,25,28	5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1,2,4,6,7	5	Rosenberg(1965) 강미정(2014)	5점 리커트형
	부정적 자아존중감	3,5,8,9,10	5	고선형(2015)	척도
	만족감	1,3,9,10	4		
대인관계	의사소통	2,14,18,19	4	Schlein, Guerney, Stover(1971)	
	신뢰감	15,23,24	3	문선모(1980)	5점
	친근감	5,11,16	3	전석균(1995)	리커트형
	민감성	4,6	2	박선아(2005)	척도
	개방성	12,17,20,21,22	5	이주미(2017)	
	이해성	7,8,13,25	4		
	인구통계학적특성			9	연구자
총 문항 수			72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관해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통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서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분석하여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넷째,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투입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연령대는 40대 48.0%, 50대 52.0%로 50대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여부의 경우 기혼 86.6%, 미혼(별거, 이혼, 사별) 13.5%로 기혼이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5.7%, 대학교 졸업 42.3%, 대학원 졸업 이상 12.0%로 순으로 고졸이하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직업은 회사원 24.6%, 전업주부 20.9%, 전문직 20.0%, 서비스직 15.7%, 자영업 12.9% 등으로 회사원, 전업주부, 전문직 순으로 높게 분포되었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 21.4%, 200~250만원 미만 23.4%, 250~300만원 미만 20.9%, 300~350만원 미만 15.4%, 400만원 이상 18.9%로 200~25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화장품 구매비용은 10만원 미만 35.1%, 10~20만원 미만 37.1%, 20~30만원 이상 27.7%로 10~2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10만원 미만의 순으로 높았다.

중년기 여성의 신체적 특성인 갱년기에 대한 설문 결과 갱년기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자가 39.1%,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가 60.9%로 갱년기가 아닌 응답자가 더 많았다. 또한 폐경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해당한다고 응답한 자가 35.4%,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가 64.6%로 폐경기가 아니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폐경 추정 연령이 48~50세인(박영주 외, 2001) 것과 다른 결과로 갱년기나 폐경증상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영양상태, 체질, 분만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유무에 대한 응답은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92.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가 없다는 응답은 7.4%로 조사되었다. <표 3>은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분포 (N=350)

변인	항목	빈도(N)	백분율(%)
연령	40대	168	48.0
	50대	182	52.0
결혼상태	기혼	303	86.6
	미혼(별거,이혼,사별)	47	13.5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12	3.4
	고졸이하	160	45.7
	대학교 졸업	148	42.3
직업	대학원 졸업 이상	42	12.0
	서비스직	55	15.7
	회사원	86	24.6
	전문직	70	20.0
	자영업	45	12.9
월평균수입	기타	21	6.0
	150만원 미만	34	9.7
	150~200만원 미만	41	11.7
	200~250만원 미만	82	23.4
	250~300만원 미만	73	20.9
	300~350만원 미만	54	15.4
월평균 화장품 구매비용	400만원 이상	66	18.9
	10만원 미만	123	35.1
갱년기	10~20만원 미만	130	37.1
	30만원 이상	97	27.7
폐경	예	137	39.1
	아니오	213	60.9
자녀	예	124	35.4
	아니오	226	64.6
	유	324	92.6
전 체		350	100

2.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대한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변수들을 적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각 문항을 몇 가지 소수의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 하는지, 곧 타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요인추출법으로는 주성분법(Principle Components)을 실시하였고,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들만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회전과 위해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실시했다. 베리맥스는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각 변수의 요인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을 보통 .30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은 .50이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요인분석은 분석방법의 특성상 각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고 Kaise-Mayer-Olkin(KMO)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각 항목들 간의 상관행력을 확인함으로써 사용 항목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가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KMO는 변수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어지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보통 KMO값이 .90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고 .50이하면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들이 동질적인 문항구성으로 이루어 졌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했다. 신뢰도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보며 .50이상 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Durbin-Watson 수치를 분석하고, Durbin-Watson 수치가 2에 가까울수록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

1) 화장행동 질문지의 타당성 및 신뢰도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 28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10개 문항을 제외한 18개 문항이 추출되었고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최종 실시하였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982.311$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 결과 KMO값이 0.745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500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이 충족하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섯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10문항이 삭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7.6%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784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635 이상으로 분석되었고 각 구성된 문항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14.1%)은 '화장술로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다', '화장은 대인지향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법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화장을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로 ‘도구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11.6%)는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화장을 해야 편하다’,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비슷한 스타일로 색상과 화장품을 택한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화장하는 분위기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조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11.5%)은 ‘TV광고와 잡지에 나오는 모델의 메이크업을 따라해 보고 싶다’, ‘유행하는 립스틱을 꼭 사용해 보고 싶다’, ‘나는 화장할 때 언제나 현재 유행하는 화장법을 따른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행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10.9%)는 ‘모임에서 관심을 끌만한 화장이 좋다’, ‘화장할 때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한 화장이 한다’, ‘눈에 띄는 화장을 하고 싶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시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10.3%)는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화장할 때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좋다’, ‘남들의 화장법에 좌우되기 보다는 나 나름대로의 화장법을 고수하는 편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관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9.2%)은 ‘값싼 화장품을 사용하면 내 신분이 낮아 보이는 것 같다’, ‘비싸도 유명상품의 화장품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존감’으로 명명하였다.

여섯 개의 요인은 적재 값이 ± 0.50 이상 수준으로 분석되어 추출된 요인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며, 신뢰도 또한 모두 $.60$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4>는 화장행동 질문지의 요인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화장행동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N=350)

item	factor						공통성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과시성	주관성	자존감	
·화장술로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다	.810	.134	.241	.037	-.010	.093	.743
·화장은 대인지향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760	-.090	.054	.026	.288	.070	.677
·나는 나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법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759	.189	.298	.041	-.103	.012	.714
·화장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714	.048	.035	-.020	.331	-.056	.627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비슷한 스타일로 색상과 화장품을 택한다.	-.058	.815	.113	.039	-.059	.170	.714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화장을 해야 편하다.	.148	.777	.153	.001	.014	-.052	.651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화장하는 분위기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111	.770	.082	.155	-.058	-.016	.640
·유행하는 립스틱을 꼭 사용해 보고싶다.	.203	.101	.806	.141	.036	.117	.736
·나는 화장할 때 언제나 유행하는 화장법을 따른다.	.161	.224	.756	.075	-.070	.170	.686
·TV광고나 잡지에 나오는 모델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	.153	.078	.744	.174	.197	-.116	.666
·화장할 때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한 화장을 한다.	.034	-.105	.109	.802	.105	-.045	.680
·눈에 띄는 화장을 하고 싶다.	.013	.181	.128	.781	-.094	.188	.703
·모임에서 관심을 끌만한 화장이 좋다.	.012	.146	.120	.680	.037	.193	.536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200	.072	.093	.143	.753	-.109	.654
·나는 화장할 때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좋다.	-.027	-.114	.153	-.299	.741	.145	.696
·남들의 화장법에 좌우되기 보다는 나 나름대로의 화장법을 고수하는 편이다.	.200	-.098	-.095	.155	.678	.194	.580
·비싸도 유명상품의 화장품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다.	.052	.043	.005	.163	.045	.844	.746
·값싼 화장품을 사용하면 내 신분이 낮아 보이는 것 같다.	.033	.037	.126	.100	.107	.835	.737
고유값	2.535	2.087	2.068	1.971	1.866	1.659	
분산(%)	14.081	11.594	11.489	10.949	10.365	9.217	
누적(%)	14.081	25.676	37.164	48.114	58.479	67.697	
신뢰도(Cronbach's α)	.801	.734	.757	.689	.635	.707	
전체신뢰도							.784
KMO와 Bartlett 검정							KMO=.745, $\chi^2=1982.311$ $p<.000$

2) 자아존중감 질문지의 타당성 및 신뢰도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 10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 결과 10개 문항이 모두 추출된바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최종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이 포함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55.71%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852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791 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 1(28.6%)은 ‘나는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27.1%)는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타인이 볼 때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하였다.

이 두 개의 요인은 적재 값이 +50 이상 수준으로 분석되어 추출된 요인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며, 신뢰도 또한 모두 .60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5> 자아존중감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N=350)

item	factor		공통성
	긍정적	부정적	
·나는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56	-.179	.603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40	-.115	.56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726	-.132	.544
·나는 남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704	-.200	.535
·나는 내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683	-.222	.516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	-.172	.784	.645
·나는 내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017	.776	.602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150	.687	.495
·나는 타인이 볼 때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48	.661	.558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285	.657	.513
고유값	2.862	2.710	
분산(%)	28.619	27.096	
누적(%)	28.619	55.715	
신뢰도(Cronbach's <i>a</i>)	.794	.791	
전체신뢰도	.852		
KMO와 Bartlett 검정	KMO=.811 $\chi^2=1225.324$ $p<.000$		

3) 대인관계 질문지의 타당성 및 신뢰도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대인관계 25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1개 문항을 제외한 24개 문항이 추출되었고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최종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곱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1 문항이 삭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7.71%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906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16.2%)은 ‘나는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관심사를 나누고 싶어 한

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느낌을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나는 나 자신을 쉽게 잘 표현하고 터놓고 생활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의 욕구나 바라는 것을 잘 깨닫는다’,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11.3%)는 ‘나는 다른 사람을 믿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호의적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많은 관심과 따뜻한 정을 준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표현하는 긍정적인 느낌을 믿고 받아들이는 편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친근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9.8%)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 스스로를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볼 것 같다’, ‘나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만족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족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8.4%)는 ‘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해성’로 명명하였다.

요인 5(7.8%)는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잘 맞지 않을 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7.3%)는 ‘다른 사람의 특징에 대한 나의 반응이 빠른 편이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로 ‘민감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10.5%)는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과 맺고 싶은 인간관계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표현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뢰감’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일곱 개의 요인은 적재 값이 +50 이상 수준으로 분석되어, 추출된 요인의 타당성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뢰도에서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6>은 대인관계 질문지의 요인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대인관계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N=350)

item	factor							공통성	
	개방성	친근감	만족감	이해성	의사소통	민감성	신뢰성		
·나는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관심사를 나누고 싶어 한다.	.771	.126	.066	.070	.052	-.059	.144	.646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느낌을 기본 나쁘지 않도록 잘 표현할 수 있다.	.769	.062	.060	.031	.173	.050	.261	.70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763	.228	.082	-.062	.149	.079	.107	.684	
·다른 사람에 대해 나는 나 자신을 쉽게 잘 표현하고 터놓고 생활하는 편이다.	.642	-.031	.029	.154	.327	.179	-.152	.599	
·다른 사람의 욕구나 바라는 것을 잘 깨닫는다.	.605	.133	.161	.349	-.069	.422	-.071	.720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다.	.576	-.073	.037	.146	.442	.342	.045	.675	
·나는 다른 사람을 믿는다.	.169	.762	.013	.143	.217	.142	-.063	.700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호의적이다.	-.039	.700	.256	.204	.110	.105	.216	.668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507	.594	.190	-.040	.092	.014	.020	.657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많은 관심과 따뜻한 정을 준다	-.001	.570	.215	.394	.004	.142	.219	.595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표현하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받아들이는 편이다.	.306	.512	-.133	-.007	.071	.239	.506	.692	
·다른 사람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003	.267	.729	.108	.011	.215	-.070	.666	
·나는 내 자신 스스로를 만족한다.	.051	.150	.692	.095	.149	.337	.071	.654	
·다른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볼 것 같다.	.478	-.027	.645	.172	.096	-.138	-.131	.72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만족한다.	.119	-.041	.614	.302	.232	.027	.279	.616	
·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125	.099	.135	.800	.152	.164	.067	.738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092	.273	.206	.756	.021	-.046	.178	.731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잘 맞지 않을 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363	.183	.077	.114	.664	.158	.061	.654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313	.156	.167	-.139	.654	.222	.128	.663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039	.216	.238	.351	.629	-.143	.169	.673	
·다른 사람의 특징에 대한 나의 반응이 빠른 편이다.	.101	.282	.175	.187	.107	.737	.032	.711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125	.101	.354	-.103	.158	.569	.206	.554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과 맺고 싶은 인간관계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	.095	.102	.147	.268	.142	.027	.804	.781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표현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할 수 있다.	.307	.468	-.159	.049	.155	.359	.510	.754	
고유값	3.888	2.710	2.367	2.023	1.889	1.748	1.626		
분산(%)	16.198	11.292	9.861	8.428	7.871	7.285	6.776		
누적(%)	16.198	27.490	37.351	45.779	53.650	60.936	67.711		
신뢰도(Cronbach's <i>a</i>)	.852	.781	.736	.746	.677	.517	.636		
전체신뢰도								.906	
KMO와 Bartlett 검정									KMO=.889, $\chi^2=3605.439$ $p<.000$

3.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의 도구성($r=.349, p<.01$), 동조성($r=.204, p<.01$), 유행성($r=.192, p<.01$), 과시성($r=.113,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의 도구성($r=-.277, p<.01$), 동조성($r=-.127, p<.05$), 유행성($r=-.285,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순구, 박정순(1990)의 자아존중감과 의복 행동 간의 상관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비슷한 행동을 하거나 조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는 동조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밝힌 연구와 같은 결과로, 각 변인간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중 개방성에서는 화장행동의 동조성($r=.131, p<.05$), 과시성($r=.114, p<.05$), 주관성($r=.202,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으며, 친근감에서는 도구성($r=.221, p<.01$), 유행성($r=.179, p<.01$), 주관성($r=.220, p<.01$)에 만족감에서는 도구성($r=.210, p<.01$), 동조성($r=.118, p<.05$), 유행성($r=.339, p<.01$), 자존감($r=.168, p<.01$)에 이해성에서는 도구성($r=.212, p<.01$), 유행성($r=.300, p<.01$), 자존감($r=.152, p<.01$)에 의사소통에서는 도구성($r=.252, p<.01$), 유행성($r=.149, p<.01$), 과시성($r=.124, p<.05$), 주관성($r=.113, p<.015$)에 신뢰감에서는 도구성($r=.231, p<.01$), 동조성($r=.126, p<.05$), 유행성($r=.173, p<.01$), 과시성($r=.206, p<.01$), 주관성($r=.165, p<.01$)에 변수 간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수경, 강경자(2007)연구에서 화장행동의 도구성, 동조성, 주관성, 과시성은 대인관계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7>은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7>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간의 상관관계 분석

(N=350)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폐사성	주관성	자존감	공경적	부경적	개방성	친근감	만족감	이해성	의사 소통	민감성	신뢰감
도구성	3.9471	.72268	1														
동조성	3.2429	.73030	.423**	1													
유행성	3.9429	.64869	.295**	.145**	1												
폐사성	2.9057	.72104	.204**	.327**	-.087	1											
주관성	2.6657	.76183	.113*	.307**	.040	.188**	1										
자존감	2.6986	.89226	.113*	.182**	.163**	.112*	.276**	1									
공경적	4.0114	.48150	.349**	.204**	.192**	.113*	.009	.108*	1								
부경적	2.0383	.57275	-.277**	-.127*	-.235**	.090	.089	.039	-.474**	1							
개방성	3.3971	.64387	.058	.181*	.008	.114*	.202**	-.091	.103	-.102	1						
친근감	3.6143	.58924	.221**	.049	.179**	.050	.220**	-.088	.252**	-.156**	.446**	1					
만족감	3.6293	.54018	.210**	.118*	.339**	.029	.072	.168**	.476**	-.299**	.405**	.387**	1				
이해성	3.7614	.65303	.212**	.069	.300**	.052	.048	.152**	.293**	-.256**	.303**	.448**	.433**	1			
의사 소통	3.5924	.59587	.252**	.097	.149**	.124*	.113*	.028	.215**	-.235**	.555**	.490**	.449**	.372**	1		
민감성	3.6900	.62175	.196**	.205**	.154**	.107*	.144**	-.119*	.339**	-.222**	.396**	.464**	.459**	.288**	.429**	1	
신뢰감	3.6186	.64419	.231**	.126*	.173**	.206**	.165**	-.009	.206**	-.131*	.419**	.615**	.231**	.360**	.442**	.399**	1

* $p < .05$, ** $p < .01$

4.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대한 화장행동의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143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F=9.505, p<.001$), 독립변수인 화장행동의 도구성($\beta=.284, p<.001$)에서만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대한 화장행동의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158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F=10.749, p<.001$), 독립변수인 화장행동의 도구성($\beta=-.222, p<.001$), 유행성($\beta=-.213, p<.001$) 과시성($\beta=.116, p<.05$), 주관성 ($\beta=.119, p<.05$)은 유의수준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8과> 같이 중년기 여성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적극적인 화장행동의 변화, 화장이 대인지향에서 필수라는 인식 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인식의 도구성에서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길문정 외(2017)의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표 8>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독립변인 (화장행동)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긍정적	(상수)	2.784	.205		13.551	.000
	도구성	.189	.038	.284	4.931	.000***
	동조성	.043	.039	.066	1.102	.271
	유행성	.071	.040	.096	1.784	.075
	과시성	.033	.036	.049	.898	.370
	주관성	-.046	.034	-.073	-1.350	.178
	자존감	.034	.029	.063	1.195	.233
	R=.378 R ² =.143 F=9.505*** Dubin-Watson 1.943					
자아 존중감	(상수)	3.078	.242		12.711	.000
	도구성	-.176	.045	-.222	-3.883	.000***
	동조성	-.070	.046	-.089	-1.514	.131
	유행성	-.188	.047	-.213	-3.995	.000***
	과시성	.092	.043	.116	2.159	.032*
	주관성	.090	.040	.119	2.217	.027*
	자존감	.044	.034	.069	1.306	.193
	R=.398 R ² =.158 F=10.749*** Dubin-Watson 1.724					

* $p < .05$, *** $p < .001$

2)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 중 개방성 요인에 대한 화장행동의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077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F=4.753$, $p < .001$),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의 주관성($\beta = .214$, $p < .001$), 자존감($\beta = -.175$, $p < .01$)에서만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개

방적 인식이 높을수록 화장행동에 적극적이며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친근감 요인에 대한 화장행동의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48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F=2.164$, $p<.001$),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의 도구성($\beta=.210$, $p<.001$), 동조성($\beta=-.122$, $p<.05$), 유행성($\beta=.158$, $p<.01$), 주관성($\beta=.275$, $p<.001$), 자존감($\beta=-.195$, $p<.001$)에서 친근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화장행동이 친근감이 높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 중 만족감 요인에 대한 화장행동의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40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F=9.343$, $p<.001$),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의 유행성($\beta=.292$, $p<.001$)에서만 만족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이해성 요인에 대한 화장행동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21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7.851$, $p<.001$),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의 도구성($\beta=.141$, $p<.05$), 유행성($\beta=.257$, $p<.001$)로 이해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인관계 중 의사소통 요인에 대한 화장행동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087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F=25.434$, $p<.001$),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의 도구성($\beta=.222$, $p<.001$)에서만 의사소통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은(2003)의 연구에서 화장행동은 대인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나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배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중 의사소통요인의 도구성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대인관계 중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시 도구적 수단으로써 화장행동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인관계 중 민감성 요인에 대한 화장행동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19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F=7.719, p<.001$),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의 동조성($\beta=.120, p<.05$), 유행성($\beta=.142, p<.01$), 주관성($\beta=.140, p<.05$), 자존감($\beta=-.221, p<.001$)에서 민감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신뢰감 요인에 대한 화장행동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23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F=8.027, p<.001$),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의 도구성($\beta=.163, p<.01$), 유행성($\beta=.160, p<.01$), 과시성($\beta=.188, p<.01$), 주관성($\beta=.150, p<.01$), 자존감($\beta=-.106, p<.05$)에서 신뢰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화장행동은 대인관계에서 각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방성에서는 주관성, 친근감에서는 도구성, 주관성, 자존감, 만족감과 이해성에서는 유행성, 의사소통에서는 도구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9>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노선옥(2011)의 연구에서 화장은 사회생활에 예의와 필수이며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에 도움을 준다고 한 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9>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독립변인 (화장행동)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개방성	(상수)	2.756	.285		9.669	.000
	도구성	.002	.053	.003	.045	.964
	동조성	.061	.054	.069	1.115	.266
	유행성	.023	.055	.023	.415	.678
	과시성	.065	.050	.073	1.295	.196
	주관성	.181	.048	.214	3.798	.000***
	자존감	-.126	.040	-.175	-3.175	.002**
R=.277 R ² =.077 F=4.753*** Dubin-Watson 1.552						
친근감	(상수)	2.426	.242		10.018	.000
	도구성	.166	.045	.210	3.663	.000***
	동조성	-.095	.046	-.122	-2.056	.041*
	유행성	.139	.047	.158	2.955	.003**
	과시성	.024	.043	.031	.566	.572
	주관성	.206	.040	.275	5.081	.000***
	자존감	-.124	.034	-.195	-3.685	.000***
R=.385 R ² =.148 F=2.164** Dubin-Watson 1.780						
만족감	(상수)	2.123	.231		9.201	.000
	도구성	.080	.043	.107	1.853	.065
	동조성	.000	.044	.000	.008	.994
	유행성	.243	.045	.292	5.431	.000***
	과시성	.013	.041	.018	.327	.744
	주관성	.012	.039	.017	.313	.754
	자존감	.062	.032	.102	1.918	.056
R=.375 R ² =.140 F=9.343*** Dubin-Watson 1.905						
이해성	(상수)	2.084	.282		7.388	.000
	도구성	.128	.053	.141	2.424	.016*
	동조성	-.059	.054	-.066	-1.091	.276
	유행성	.258	.055	.257	4.718	.000***
	과시성	.050	.050	.055	1.009	.314
	주관성	.004	.047	.005	.087	.931
	자존감	.072	.039	.099	1.845	.066
R=.347 R ² =.121 F=7.851*** Dubin-Watson 1.835						
계	(상수)	2.455	.232		10.603	.000
	도구성	.162	.043	.223	3.752	.000***
	동조성	-.048	.044	-.066	-1.078	.282
	유행성	.084	.045	.104	1.871	.062
	과시성	.070	.041	.096	1.708	.089
	주관성	.067	.039	.097	1.723	.086
	자존감	-.023	.032	-.039	-.722	.471
R=.295 R ² =.087 F=25.434*** Dubin-Watson 1.703						
민감성	(상수)	2.329	.269		8.661	.000
	도구성	.086	.050	.100	1.707	.089
	동조성	.102	.051	.120	1.994	.047*
	유행성	.137	.052	.142	2.616	.009**
	과시성	.051	.047	.059	1.066	.287
	주관성	.115	.045	.140	2.549	.011*
	자존감	-.154	.037	-.221	-4.114	.000***
R=.345 R ² =.119 F=7.719*** Dubin-Watson 1.680						
신뢰감	(상수)	1.944	.278		6.993	.000
	도구성	.146	.052	.163	2.805	.005**
	동조성	-.048	.053	-.054	-.901	.368
	유행성	.159	.054	.160	2.950	.003**
	과시성	.168	.049	.188	3.430	.001**
	주관성	.127	.046	.150	2.739	.006**
	자존감	-.077	.039	-.106	-1.988	.048*
R=.351 R ² =.123 F=8.027*** Dubin-Watson 1.697						

*p<.05, **p<.01, ***p<.001

3)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 중 개방성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014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F=2.509$),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긍정적 자아존중감 .071, 부정적 자아존중감 $-.069$ 로 모든 요인에서 개방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친근감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065으로 확인되었고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12.112$, $p<.001$),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 ($\beta=.229$, $p<.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인관계 중 만족감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233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52.766$, $p<.001$),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 ($\beta=.431$, $p<.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년기 여성들의 외모 만족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로, 대상은 다르지만 임지혜 (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낮은 신체 만족도가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거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대인관계 중 이해성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104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20.038$, $p<.001$),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 ($\beta=.221$, $p<.001$), 부정적 자아존중감 ($\beta = -.151$, $p<.01$)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들의 화장행동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이해성의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 중 의사소통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069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F=12.834$, $p<.001$), 독립변수인 부정적 자아존중감($\beta = -.172$, $p<.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민감성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120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F=23.842$, $p<.001$),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beta = .074$, $p<.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인관계 중 신뢰감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044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F=7.981$, $p<.001$),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beta = .186$, $p<.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과 같은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각 요인 중 개방성을 제외한 친근감, 만족감, 이해성, 의사소통, 민감성, 신뢰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선형(2015)과 허한형(201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독립변인 (화장행동)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개방성	(상수)	3.176	.410		7.738	.000
	긍정적	.094	.081	.071	1.165	.245
	부정적	-.077	.068	-.069	-1.133	.258
		R=.119	R ² =.014	F=2.509	Dubin-Watson	1.438
친근감	(상수)	2.623	.353		7.424	.000
	긍정적	.271	.070	.229	3.892	.000***
	부정적	-.047	.059	-.048	-0.809	.419
		R=.255	R ² =.065	F=12.112***	Dubin-Watson	1.823
만족감	(상수)	1.871	.304		6.161	.000
	긍정적	.484	.060	.431	8.075	.000***
	부정적	-.089	.050	-.094	-1.767	.078
		R=.483	R ² =.233	F=52.766***	Dubin-Watson	1.978
이해성	(상수)	2.907	.397		7.324	.000
	긍정적	.300	.078	.221	3.838	.000***
	부정적	-.172	.066	-.151	-2.616	.009**
		R=.322	R ² =.104	F=20.038***	Dubin-Watson	1.785
의사소통	(상수)	3.329	.326		10.219	.000
	긍정적	.146	.064	.133	2.267	.024
	부정적	-.158	.054	-.172	-2.916	.004**
		R=.262	R ² =.069	F=12.834***	Dubin-Watson	1.734
민감성	(상수)	2.203	.374		5.882	.000
	긍정적	.390	.074	.302	5.275	.000*
	부정적	-.086	.062	-.079	-1.385	.167
		R=.346	R ² =.120	F=23.842***	Dubin-Watson	1.620
신뢰감	(상수)	2.720	.404		6.727	.000
	긍정적	.249	.080	.186	3.117	.002**
	부정적	-.049	.067	-.043	-.724	.470
		R=.210	R ² =.044	F=7.981***	Dubin-Watson	1.679

* $p < .05$, ** $p < .01$, *** $p < .001$

5.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분석

매개 효과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 하나가 위치한 모델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직접적으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먼저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대인관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모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화장행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의 대인관계 하위요인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모형 2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요인에서 $p < .05$ 이상의 수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β 값이 '모형1 > 모형 2'가 되어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모형 3에서도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요인에서 $p < .05$ 이상의 수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β 값이 '모형1 > 모형 3'가 되어야 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표 11>과 같이 '화장행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긍정적' 요인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대외관계 중 '개방성'으로 한 분석에서 두 모형에 사용한 β 값을 비교하면 주관성($\beta =$ 모형 1=.214 < 모형 2=.222, $p < .001$), 자존감($\beta =$ 모형 1=-.175 < 모형 2=-.181, $p < .01$)에서 모형 1의 β 값이 작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방법을 통해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p < .05$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나, 모형 1과 모형 3의 β 값의 비교에서 주관성($\beta =$ 모형 1=.214 < 모형 3=.229, $p < .001$), 자존감($\beta =$ 모형 1=-.175 < 모형

3=-.182 $p<.01$)으로 모형 1의 β 값이 작게 나타나므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매개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1>은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개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결과이다.

<표 11>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개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대인관계)	모형	독립변인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개방성	1	(상수)	2.756	.285		9.669	.000
		도구성	.002	.053	.003	.045	.964
		동조성	.061	.054	.069	1.115	.266
		유행성	.023	.055	.023	.415	.678
		과시성	.065	.050	.073	1.295	.196
		주관성	.181	.048	.214	3.798	.000***
		자존감	-.126	.040	-.175	-3.175	.002**
		R=.277 R ² =.077 F=4.753*** Dubin-Watson 1.552					
	2	(상수)	2.356	.352		6.697	.000
		도구성	-.025	.055	-.028	-.452	.652
		동조성	.054	.054	.062	1.003	.317
		유행성	.013	.055	.013	.230	.818
		과시성	.060	.050	.068	1.205	.229
		주관성	.188	.048	.222	3.943	.000***
자존감		-.131	.040	-.181	-3.305	.001**	
긍정적		.144	.075	.107	1.926	.055	
R=.294 R ² =.087 F=4.636*** Dubin-Watson 1.550							
3	(상수)	3.196	.344		9.298	.000	
	도구성	-.023	.054	-.025	-.420	.675	
	동조성	.051	.054	.057	.934	.351	
	유행성	-.004	.056	-.004	-.068	.946	
	과시성	.078	.050	.088	1.555	.121	
	주관성	.194	.048	.229	4.062	.000***	
	자존감	-.120	.040	-.182	-3.028	.003**	
	부정적	-.143	.063	-.127	-2.259	.024*	
R=.301 R ² =.090 F=4.852*** Dubin-Watson 1.543							

* $p<.05$, ** $p<.01$, *** $p<.001$

‘친근감’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의 β 값을 비교하면 도구성(β =모형 1=.210, $p<.001$ > 모형 2=.148, $p<.05$), 동조성(β =모형 1=-.122 < 모형 2=-.136, $p<.05$), 유행성(β =모형 1=.158 > 모형 2=.137, $p<.01$), 주관성(β =모형 1=.275 > 모형 2=.291, $p<.001$), 자존감(β =모형 1=-.195 < 모형 2=-.208, $p<.001$)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1과 모형 2의 비교에서 모형 1의 β 값이 부분적으로 크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에도 $p<.001$ 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므로 매개효과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교방법을 통해 모형 1과 모형 3의 β 값을 비교하면 도구성(β =모형 1=.210, $p<.001$ > 모형 3=.186, $p<.01$), 동조성(β =모형 1=-.122 < 모형 3=-.132, $p<.05$), 유행성(β =모형 1=.158 > 모형 3=.135, $p<.05$), 주관성(β =모형 1=.275 > 모형 3=.271, $p<.001$), 자존감(β =모형 1=-.195 > 모형 3=-.187, $p<.001$)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1과 모형3의 β 값이 대부분의 모형 1이 크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p<.001$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2>는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친근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결과이다.

<표 12>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친근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대인관계)	모형	독립변인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친근감	1	(상수)	2.426	.242		10.018	.000	
		도구성	.166	.045	.210	3.663	.000***	
		동조성	-.095	.046	-.122	-2.056	.041*	
		유행성	.139	.047	.158	2.955	.003**	
		과시성	.024	.043	.031	.566	.572	
		주관성	.206	.040	.275	5.081	.000***	
		자존감	-.124	.034	-.195	-3.685	.000***	
	R=.385 R ² =.148 F=9.924*** Dubin-Watson 1.780							
	2	(상수)	1.704	.293		5.813	.000	
		도구성	.117	.046	.148	2.550	.011*	
		동조성	-.106	.045	-.136	-2.349	.019*	
		유행성	.120	.046	.137	2.611	.009**	
		과시성	.016	.042	.020	.376	.707	
		주관성	.218	.040	.291	5.491	.000***	
		자존감	-.133	.033	-.208	-4.033	.000***	
	긍정적	.259	.062	.219	4.172	.000***		
	R=.435 R ² =.189 F=11.400*** Dubin-Watson 1.797							
	3	(상수)	2.756	.292		9.426	.000	
		도구성	.147	.046	.186	3.191	.002**	
		동조성	-.103	.046	-.132	-2.221	.027*	
		유행성	.119	.048	.135	2.480	.014*	
과시성		.034	.043	.043	.795	.427		
주관성		.215	.041	.271	5.305	.000***		
자존감		-.119	.034	-.187	-3.551	.000***		
부정적	-.107	.054	-.108	-1.997	.047*			
R=.397 R ² =.158 F=9.150*** Dubin-Watson 1.786								

* $p < .05$, ** $p < .01$, *** $p < .001$

‘만족감’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의 β 값의 비교를 통해 유행성(β =모형 1=.292, $p < .001$ > 모형 2=.251, $p < .001$)에서 모형 1이 크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p < .001$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방법을 통해 모형 1과 모형 3의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유행성(β =모형 1=.292, $p < .001$ > 모형 3=.243, $p < .001$)에서 모형 1이 크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p < .001$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

단할 수 있다. <표 13>은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만족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결과이다.

<표 13>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만족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대인관계)	모형	독립변인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만족감	1	(상수)	2.123	.231		9.201	.000	
		도구성	.080	.043	.107	1.853	.065	
		동조성	.000	.044	.000	.008	.994	
		유행성	.243	.045	.292	5.431	.000***	
		과시성	.013	.041	.018	.327	.744	
		주관성	.012	.039	.017	.313	.754	
		자존감	.062	.032	.102	1.918	.056	
	R=.375 R ² =.140 F=9.343** Dubin-Watson 1.905							
	2	(상수)	.779	.259		3.013	.003	
		도구성	-.011	.040	-.015	-.285	.776	
		동조성	-.021	.040	-.028	-.514	.608	
		유행성	.209	.041	.251	5.134	.000***	
		과시성	-.002	.037	-.003	-.066	.948	
		주관성	.034	.035	.049	.985	.325	
		자존감	.045	.029	.074	1.550	.122	
	긍정적	.483	.055	.430	8.804	.000***		
	R=.547 R ² =.299 F=20.869** Dubin-Watson 1.986							
	3	(상수)	2.788	.273		10.212	.000	
		도구성	.042	.043	.056	.976	.330	
		동조성	-.015	.043	-.020	-.342	.732	
		유행성	.203	.045	.243	4.535	.000***	
과시성		.033	.040	.044	.831	.407		
주관성		.031	.038	.044	.830	.407		
자존감		.071	.031	.117	2.264	.024*		
부정적	-.216	.050	-.229	-4.303	.000***			
R=.430 R ² =.185 F=11.063** Dubin-Watson 1.915								

* $p < .05$, *** $p < .001$

‘이해성’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의 β 값의 비교를 통해 화장행동 중 유행성(β =모형 1=.257, $p < .001$ > 모형 2=.235, $p < .001$)에서 모형 1이 크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p < .001$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

방법을 통해 모형 1과 모형 3의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유행성(β =모형 1=.257, $p<.001$ > 모형 3=.216, $p<.001$)에서 모형 1이 크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p<.001$ 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4>는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이해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결과이다.

<표 14>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이해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대인관계)	모형	독립변인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이해성	1	(상수)	2.084	.282			7.388	.000	
		도구성	.128	.053	.141		2.424	.016*	
		동조성	-.059	.054	-.066		-1.091	.276	
		유행성	.258	.055	.257		4.718	.000***	
		과시성	.050	.050	.055		1.009	.314	
		주관성	.004	.047	.005		.087	.931	
		자존감	.072	.039	.099		1.845	.066	
	R=.347 R ² =.121 F=7.851*** Dubin-Watson 1.835								
	2	(상수)	1.244	.342			3.643	.000	
		도구성	.071	.053	.078		1.326	.186	
		동조성	-.072	.053	-.080		-1.362	.174	
		유행성	.237	.054	.235		4.408	.000***	
		과시성	.040	.049	.045		.830	.407	
		주관성	.018	.046	.021		.392	.695	
자존감		.062	.038	.085		1.616	.107		
긍정적	.302	.072	.223		4.166	.000***			
R=.404 R ² =.163 F=9.529*** Dubin-Watson 1.841									
3	(상수)	2.756	.337			8.188	.000		
	도구성	.089	.053	.099		1.688	.092		
	동조성	-.074	.053	-.083		-1.393	.165		
	유행성	.217	.055	.216		3.944	.000***		
	과시성	.070	.049	.078		1.427	.154		
	주관성	.024	.047	.028		.507	.612		
	자존감	.082	.039	.112		2.119	.035*		
부정적	-.218	.062	-.191		-3.527	.000***			
R=.389 R ² =.152 F=8.732*** Dubin-Watson 1.842									

* $p<.05$, *** $p<.001$

‘의사소통’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의 β 값의 비교를 통해 도구성(β =모형 1=.223, $p<.001$ > 모형 2=.182, $p<.01$)에서 모형 1이 크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p<.05$ 의 유의미한 영향으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방법을 통해 모형 1과 모형 3의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도구성(β =모형 1=.223, $p<.001$ > 모형 3=.172, $p<.01$)에서 모형 1이 크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p<.001$ 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표 1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5>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의사소통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대인관계)	모형	독립변인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2.455	.232		10.603	.000	
		도구성	.162	.043	.223	3.752	.000***	
		동조성	-.048	.044	-.066	-1.078	.282	
		유행성	.084	.045	.104	1.871	.062	
	1	과시성	.070	.041	.096	1.708	.089	
		주관성	.067	.039	.097	1.723	.086	
		자존감	-.023	.032	-.039	-.722	.471	
		R=.295 R ² =.087 F=5.434*** Dubin-Watson 1.703						
		(상수)	2.019	.285		7.096	.000	
		도구성	.133	.044	.182	2.989	.003**	
		동조성	-.054	.044	-.076	-1.239	.216	
		유행성	.073	.045	.090	1.629	.104	
의사	2	과시성	.065	.041	.089	1.594	.112	
소통		주관성	.074	.038	.107	1.921	.056	
		자존감	-.029	.032	-.049	-.894	.372	
		긍정적	.157	.060	.143	2.595	.010*	
		R=.323 R ² =.104 F=5.697*** Dubin-Watson 1.698						
		(상수)	3.021	.276		10.943	.000	
		도구성	.130	.043	.179	2.994	.003**	
		동조성	-.061	.044	-.084	-1.388	.166	
		유행성	.050	.045	.061	1.098	.273	
	3	과시성	.087	.040	.119	2.145	.033*	
		주관성	.083	.038	.120	2.171	.031*	
		자존감	-.015	.032	-.026	-.479	.632	
		부정적	-.184	.051	-.200	-3.619	.000***	
		R=.347 R ² =.120 F=6.693*** Dubin-Watson 1.723						

* $p<.05$, ** $p<.01$, *** $p<.001$

‘민감성’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의 β 값의 비교를 통해 유행성(β =모형 1=.142, $p<.01$ > 모형 2=.112, $p<.05$), 주관성(β =모형 1=.140, $p<.05$ < 모형 2=.163, $p<.01$), 자존감(β =모형 1=-.221, $p<.001$ < 모형 2=-.241, $p<.001$)에서 모형 1이 크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p<.001$ 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므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방법을 통해 모형 1과 모형 3의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주관성(β =모형 1=.140, $p<.05$ < 모형 3=.161, $p<.01$), 자존감(β =모형 1=-.221, $p<.001$ > 모형 3=-.209, $p<.001$)에서 모형 1이 크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p<.01$ 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므로 ‘민감성’에서는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6>은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민감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결과이다.

<표 16>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민감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대인관계)	모형	독립변인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민감성	1	(상수)	2.329	.269		8.661	.000	
		도구성	.086	.050	.100	1.707	.089	
		동조성	.102	.051	.120	1.994	.047*	
		유행성	.137	.052	.142	2.616	.009**	
		과시성	.051	.047	.059	1.066	.287	
		주관성	.115	.045	.140	2.549	.011*	
		자존감	-.154	.037	-.221	-4.114	.000***	
	R=.345 R ² =.119 F=7.719* Dubin-Watson 1.680							
	2	(상수)	1.204	.317		3.793	.000	
		도구성	.009	.050	.011	.187	.852	
		동조성	.085	.049	.100	1.733	.084	
		유행성	.108	.050	.112	2.158	.032*	
		과시성	.037	.045	.043	.827	.409	
		주관성	.133	.043	.163	3.105	.002**	
자존감		-.168	.036	-.241	-4.697	.000***		
긍정적	.404	.067	.313	6.004	.000***			
R=.451 R ² =.203 F=12.441*** Dubin-Watson 1.676								
3	(상수)	2.922	.322		9.083	.000		
	도구성	.052	.051	.060	1.026	.306		
	동조성	.089	.051	.104	1.750	.081		
	유행성	.100	.053	.105	1.906	.057		
	과시성	.068	.047	.079	1.451	.148		
	주관성	.132	.045	.161	2.953	.003**		
	자존감	-.145	.037	-.209	-3.932	.000***		
부정적	-.193	.059	-.177	-3.255	.001**			
R=.381 R ² =.145 F=8.315*** Dubin-Watson 1.682								

* $p < .05$, ** $p < .01$, *** $p < .001$

‘신뢰감’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의 β 값의 비교를 통해 도구성(β =모형 1=.163, $p < .01$ > 모형 2=.124, $p < .05$), 유행성(β =모형 1=.160, $p < .01$ > 모형 2=.147, $p < .01$), 과시성(β =모형 1=.188, $p < .01$ > 모형 2=.181, $p < .01$), 주관성(β =모형 1=.150, $p < .01$ < 모형 2=.161, $p < .01$), 자존감(β =모형 1=-.106, $p < .001$ > 모형 2=-.115, $p < .05$)에서 모형 1이 크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p < .05$ 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방법을 통해 모형 1과 모형 3의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도구성($\beta = \text{모형 1} = .163, p < .01 > \text{모형 3} = .144, p < .05$), 유행성($\beta = \text{모형 1} = .160, p < .01 > \text{모형 3} = .114, p < .05$), 과시성($\beta = \text{모형 1} = .188, p < .01 < \text{모형 3} = .198, p < .001$), 주관성($\beta = \text{모형 1} = .150, p < .01 < \text{모형 3} = .161, p < .01$), 자존감($\beta = \text{모형 1} = -.106, p < .001 > \text{모형 3} = -.100$)에서 대부분 모형 1이 작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의 하위요인들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매개효과와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대인관계중 개방성과 민감성을 제외한 친근감, 만족감, 이해성, 의사소통, 신뢰감에서 각 모형 간 β 값 크기비교를 통해 모형1이 크고 대부분 $p < .05$ 이상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7>은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신뢰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결과이다.

<표 17>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외관계 중 신뢰감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대인관계)	모형	독립변인 (화장행동, 자아존중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신뢰감	1	(상수)	1.944	.278		6.993	.000	
		도구성	.146	.052	.163	2.805	.005**	
		동조성	-.048	.053	-.054	-.901	.368	
		유행성	.159	.054	.160	2.950	.003**	
		과시성	.168	.049	.188	3.430	.001**	
		주관성	.127	.046	.150	2.739	.006**	
		자존감	-.077	.039	-.106	-1.988	.048*	
	R=.351 R ² =.123 F=8.027*** Dubin-Watson 1.697							
	2	(상수)	1.430	.342		4.184	.000	
		도구성	.111	.053	.124	2.077	.039*	
		동조성	-.056	.053	-.063	-1.058	.291	
		유행성	.146	.054	.147	2.716	.007**	
		과시성	.162	.049	.181	3.330	.001**	
		주관성	.136	.046	.161	2.939	.004**	
		자존감	-.083	.038	-.115	-2.164	.031*	
	긍정적	.185	.072	.138	2.547	.011*		
	R=.373 R ² =.139 F=7.918*** Dubin-Watson 1.717							
	3	(상수)	2.251	.336		6.694	.000	
		도구성	.128	.053	.144	2.420	.016*	
		동조성	-.055	.053	-.062	-1.032	.303	
		유행성	.140	.055	.141	2.550	.011*	
과시성		.177	.049	.198	3.602	.000***		
주관성		.136	.047	.161	2.918	.004**		
자존감		-.072	.039	-.100	-1.874	.062		
부정적	-.100	.062	-.089	-1.616	.107			
R=.360 R ² =.130 F=7.286*** Dubin-Watson 1.699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생애주기 가운데 내·외적 변화를 가장 많이 겪으며,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40~50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기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0~50대 중년기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인구분포로는 40대가 48.0%, 50대가 52.0%로 50대가 좀 더 많았고 결혼 여부는 기혼이 86.6%로 미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5.7%로 가장 높았고, 직업은 회사원이 24.6%, 전업주부가 20.9% 순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화장품 구매비용은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35.1%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은 200~25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갱년기와 폐경에 관한 설문외 경우, '갱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60.9%, '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64.6%로 갱년기와 폐경을 경험한 비율이 조사대상에서는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폐경 추정 연령이 48~50세인(박영주 외, 2001) 것과 다른 결과로 갱년기나 폐경증상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영양상태, 체질, 분만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 변인의 요인분석에서는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화장행동은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과시성, 주관성, 자존감으로 구분하고,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구분되었으며, 대인관계에서는 개방성, 친근

감, 만족감, 이해성, 의사소통, 민감성, 신뢰성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신뢰도 계수에 있어서 화장행동 0.784, 자아존중감 0.852, 대인관계 0.906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셋째,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의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과시성과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미 하였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화장행동의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과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중 개방성에서는 화장행동의 동조성, 과시성, 주관성에, 친근감에서는 도구성, 유행성, 주관성에, 만족감에서는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자존감에, 이해성에서는 도구성, 유행성, 자존감에, 의사소통에서는 도구성, 유행성, 과시성, 주관성에, 신뢰감에서는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과시성, 주관성에서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화장행동의 도구성에서만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지향에서 필수라는 인식 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인식의 도구적 수단으로써 화장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화장행동의 도구성, 유행성, 과시성, 주관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대인관계 요인 중 개방성이 높을수록 화장행동의 주관성과 자존감을 중요시 했으며, 친근감이 높을수록 도구성, 동조성, 유행성, 주관성, 자존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요인 중 만족감이 높을수록 유행성을 중요시하였고, 이해성이 높을수록 도구성, 유행성을 중요시 하였으며, 의사소통 욕구가 높을수록 화장행동의 도구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인관계의 민감성이 높을수록 동조성, 유행성, 주관성, 자존감을 중요시 하였다. 특히

대인관계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화장행동의 모든 요인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친근감, 만족감, 이해성, 민감성, 신뢰감을 중요시 했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이해성과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대인관계의 각 하위요인들과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추가하여 실시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대인관계 요인 중 개방성과 민감성을 제외한 친근감, 만족감, 이해성, 의사소통, 신뢰감에서 $p < .05$ 이상 수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β 의 크기 비교에서도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화장행동은 대인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40~50대 중년기 여성들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장행동은 현대를 살아가는 중년기 여성들의 자존감 상승과 확장된 대인관계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전환적 행동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중년의 인구증가와 사회적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여성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중년기 여성들은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가족, 직장, 사회, 개인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보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가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었고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들이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미용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권현숙 (2001). 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문정, 김민제, 김정희, 김병관 (2017). 중년여성의 외모관리 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 7(1) pp.11-22.
- 김규리 (2016). 중년여성의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추구이미지, 외모 및 패션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범, 차영란 (2006). 여성의 화장을 통한 미(美)와 자기개념의 사회문화적 의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1(1), pp.107-123.
- 김남연 (2013). 한국인을 위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개발.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 (1988).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애 (2003). 중년여성의 하반신 체형 특성에 따른 슬랙스 원형개발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선형 (2015). 성인의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및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수 (2004).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실험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구, 박정순 (1990).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 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지, 14(4). pp.305-313.
- 김선우, 이유리 (2012).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2,30대 여성의 미인식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소비자학 연구, 23(2)

pp.351-382.

김성곤 (2018). '매력자본'시대. 조선일보. 2018.4.17, 21면.

김은희 (2009). 중년여성의 눈 화장에 따른 이미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어국문학회 (1994).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p.4442.

김유진 외 6인 (2017). 갱년기 여성의 만성질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전향적 추적관찰 연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김은심, 배행자 (1996). 집단간호 상담이 중년여성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8(1), pp.93~109.

김주덕 외 6인 (2015). 신 화장품학. 서울: 동화기술. p.478.

김현숙 (2015).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칠수, 문정혜 (2005). 20대 여성의 화장행동과 화장품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pp.59-71.

김현희 (2001). 여고생의 화장행동과 화장품 구매 불안간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희, 김용숙 (2007). 중년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얼굴만족도와 화장행동. 복식, 57(8), pp99-111.

김현희, 유태순 (2002). 여고생의 화장행동과 화장품 구매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2), pp.251-262.

김형미 (2011). 외모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란 (2006).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특성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노선옥 (2011).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너새니얼 브랜든 (2015). 자존감의 여섯 기둥(김세진 역). 서울: 교양인. p.61.
- 두산동아사서편집국 (2005).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동화출판. p.184.
- 대한간호학회 (1997). 대한간호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p.145.
- 문선모 (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19(2), pp.195-203.
- 문정혜 (2004). 직장여성과 여대생의 화장품 선호도 및 구매행동에 관한 분석.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경, 유태순 (2003).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와 의복태도 및 화장도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3(4), pp.101-112.
- 민중서림편집국 (2011). 옛센스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p.175.
- 박금자 (1999). 중년기 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희 (2008). MBTI와 여성의 화장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 6(3), pp.196-203.
- 박수경 (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주, 구병삼, 강현철, 천숙희, 윤지원(2001). 한국여성의 폐경연령, 갱년기 증상 관련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4), pp.473-485.
- 박은아 (2003). 화장의 심리사회적 의미-보여주기의 미학.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4(2), pp.105-127.
- 박은희, 구양숙 (2011). 화장품 소비자의 쇼핑성향 유형에 따른 화장행동 및 구매행동.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15(5), pp.28-42
- 박진경 (2007). 중년기 여성의 가족 스트레스와 분노.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

호학석사학위논문.

- 배연희 (2011). 대학생의 얼굴 이미지효능감이 긍정적 사고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윤 (2003). 화장행위의 만족도와 대인관계 성향의 관련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진, 김미영 (2004). 화장행동과 영향변인 연구 : 의복관여도, 연령, 얼굴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p.893-903.
- 서봉연, 유영분, 강길래 (2001). 효과적인 대인관계 노하우 프로그램집. 서울: 한국가이던스.
- 서순희 (2012). 중년여성의 노화피부 인식정도와 노화피부 개선을 위한 화장품 사용습관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익 (2005).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주 (2017). 4050후기청년. 서울: 더난출판. p.231.
- 서정아 (2012). 찰흙을 활용한 조형활동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종순 (1990).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보현 (2000).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의 변화 및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 (2011). 통계로 본 서울여성의 삶. 서울: 서울시.
- 성미혜, 윤자원, 손혜영 (2005). 중년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상태. 정신간호학회지, 14(2), pp.186-194.
- 안수옥 (2014). 화해장식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중년주부의 자아존중감

- 증진 및 우울감 해소.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모레퍼시픽 (2006). 45~65세 라이프 스타일 및 미용행태 관련 소비자 결과 보고서.
- 오세진 외 10인 (2015).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 학지사. pp.233-239.
- 오창순, 신선인, 장수미, 김수정 (201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pp.241-310.
- 윤민지 (2017).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이 미의식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2012). 중년여성의 차이연령에 따른 화장품 추구혜택이 화장품 구매 행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자, 송민정 (1990). 우리나라 전통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복식, 17(11) pp.221-245.
- 이명신 외 8인 (2015). 한국의 중년여성과 남성. 서울: 서현사. p116.
- 이상희 (2010). 화해장식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중년주부의 자아존중감 증진 및 우울감 해소.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 (2016). 청소년 자아 존중감과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긍정 가치관 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아 (2007). 한국 중년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정, 최해경 (200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 pp.12,78.
- 이희선 (2015). 중·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가 우울과 대인관계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1999). '화장'으로 읽는 여성문화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2002). 색조화장 필요성인식에 대한 세대간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성 (1982). 성장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151-157.
- 임계운 (2012). 한국 중년여성의 폐경관련 삶의 질과 갱년기 관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
- 임지혜 (2011). 여자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범희 (1985). 대인관계론. 서울: 태영출판사. pp.108-116, 121, 132-133.
- 전석균 (1995).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수정 (2017). 중년여성의 메이크업 행동과 경험을 통한 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7).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pp. 545-604.
- 정명선 (2008).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3), pp.165-177.
- 조 은 (2003). 여성의 화장 행동이 대인 관계 및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효용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안진 (201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봉실 (2017). 중학생의 외모만족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덕신 (1992). 중년기 주부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경 (2007). 성인여성의 인구 통계적 변인과 심리적 특성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7(8) pp.60-74.

최수경, 강경자 (2007). 여성의 화장행동이 화장후 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3(1), pp.155-162.

최은숙 (2012).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메이크업 테라피의 효용성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순 (2015). 노년여성의 화장행동, 심리적 특성과 영정사진 화장이미지 선호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p.281.

허한형 (2017).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의 차이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정화 (2016).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성태 (2005). 대한민국여성소비자. 서울: 세종서적.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통계청.

<인터넷>

네이버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229&cid=40942&categoryId=32160>, 검색일 : 2018.1.9.

ABSTRACT

Effects of Makeup Behavior,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Middle-aged Women

Mi-Young Jeoung

Make-up·Special Effect Make-up Major

Department of Convergence Beaut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there has been tremendous expansion in women's social advance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a result, 'makeup' has an important meaning to perform diverse functional roles in bo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aspects of women, whereas it was only understood as an aesthetic function in the pas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keup behavior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middle-aged women in their 40s and 50s who experienced the most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in human life cycle as women by population growth and broaden social participation.

For data collection, a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and the measuring variables verified their validity and reliability. Following six factors were structured for makeup behavior: instrumentality, conformity, trend, ostentation, subjectivity, and self-esteem. The self-esteem was divided into two sub-factors which were positive and negative. Regarding interpersonal factors, they were classified as openness, friendliness, contentment, apprehension, communication, sensitivity, and reliability.

As for the evaluator of statistical population was researched by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occupation, average monthly income, average monthly expense of cosmetics, climacteric, menopause, the presence of children. The research data conducted from March 28th of 2018 to April 20th of 2018. The subjects were total of 350 which were 166 middle-aged female in their 40s and 184 middle-aged female in their 50s residing Seoul metropolitan are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in SPSS 22.0 program;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statistical population traits show the percentage of women in their 50s are more of 52.0% than 40s of 48.0%, and 86.6% of women are married. 45.7% of participants are high school graduates or under compared with 42.3% are university graduates. The percentage of occupation is 24.6% and 20.9%, which are office workers and full-time housewives respectively. The responses for average monthly expense of cosmetics are highest of less than 100,000 won at 35.1% of the total amount, while the most responses

answered their average monthly income range is between 2 and 2.5 million won. In regard to climacteric and menopause criteria, subjects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climacteric or menopause as 60.9% said 'I don't have climacteric symptoms', and 64.6% said 'I'm not in the state of menopause'.

Second, since there i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in each factor analysis, it appears that reliability measurement achieved high level on 0.784 of makeup behavior, 0.852 of self-esteem, and 0.906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overall reliability coefficient.

Third, the results which are about the effect of makeup behavior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dicate that 'positive self-esteem' h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nstrumentality, conformity, trend, and ostentation of makeup behavior whereas 'negative self-esteem' has nonsignificant correlation with instrumentality, conformity, and trend. Furthermore, there a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akeup behaviors and sub-factors of interpersonal. For example, 'openness' affects conformity, ostentation, and subjectivity, 'friendliness' affects instrumentality, trend, and subjectivity, 'contentment' affects instrumentality, conformity, trend, and self-esteem, 'apprehension' affects instrumentality, trend, and self-esteem, 'communication' affects instrumentality, trend, ostentation, and subjectivity, and 'reliability' affects instrumentality, conformity, trend, ostentation, and subjectivity.

Fourth,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elf-esteem on makeup behavior, it seemed that positive self-esteem can distinctly affect instrumentality factor of makeup behavior only. This can be examined that using makeup behavior as a tool for whom the higher the positive self-esteem is, the

more necessary it is to be personal-oriented, or to be respectful to others. Also, the higher the negative self-esteem is, the more focused it is on instrumentality, trend, ostentation, and subjectivity factors of makeup behavior.

Concerning the analyzing from the impa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makeup behavior, it appears that the higher the openness of the interpersonal factors, the more important is the subjectivity and self-esteem of the makeup behaviors. Likewise, the higher the friendliness is, the more emphasize on instrumentality, conformity, trend, subjectivity, and self-esteem. In relation to contentment, the higher it is, the more important the trend is. When the greater the apprehension factor is, the more crucial the instrumentality and trend is. For communication factor, the higher pursuit of communication is, the more vital the instrumentality is. In addition, individuals who have more sensitive of personal relationship tend to be more important to conformity, trend, subjectivity, and self-esteem. In particular, the more reliabl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the more crucial all the factors of the makeup behavior. That is, for those who have more desire to make a relationship with others, they consider makeup behavior seriously.

After analyzing the impact of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higher the positive self-esteem is, the more emphasize on friendliness, contentment, apprehension, sensitivity, and reliability regarding interpersonal factors. Conversely, the higher the negative self-esteem is, the more emphasize on apprehension and communication factors.

Fifth,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makeup behavior of middle-aged women and sub-componen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actors including self-esteem variable as mediation effect, the data show that except openness and sensitivity factors, friendliness, contentment, apprehension, communication, and reliability factors have caused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p < .05$ or higher. Following this, in the case of comparison of β values, the above condition can be satisfied. Therefore, it is revealed that makeup behavior is a partial mediation parameter by self-esteem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can be seen above findings, it is clear that makeup behavior of 40s to 50s middle-aged wome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modern society, there are increase in population of middle-aged women and their social participation have gradually being advanced. Moreover, 40s to 50s middle-aged women face not only psychological and physical changes but also adapting changes and social expans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middle-aged women can understand themselves better as well as improve their self-esteem, and will be able to have more efficient competitiveness in their extend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부 록>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40~50대를 대상으로 **중년기 여성의 화장행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소중한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사용하여 처리되고, 통계법 제13조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고, 연구 이외의 자료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연구자 : 정미영(Jeam0416@naver.com)

지도교수 : 김경희 교수

I. 귀하의 화장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 하십시오.

번호	내용	① 전혀 그렇 지않 다	② 그렇 지않 다	③ 그저 그렇 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1	새로운 나를 연출하기 위해 화장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화장은 변신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TV광고나 잡지에 나오는 모델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유행하는 립스틱을 꼭 사용해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화장할 때 언제나 유행하는 화장법을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6	화장은 대인지향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높은 사람들과 사귀는 데 품위 있는 화장이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화장을 해야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법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화장술로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인기 있는 연예인의 화장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친구와 주변사람의 화장한 상태가 마음에 들면 똑같이 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	화장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화장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비슷한 스타일로 색상의 화장품을 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화장하는 분위기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화장행위는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내용	① 전혀 그렇 지않 다	② 그렇 지않 다	③ 그저 그렇 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19	모임에서 관심을 끌만한 화장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0	화장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1	값싼 화장품을 사용하면 내 신분이 낮아 보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화장할 때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낯선 사람들과 만날 때 대체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화장과 비슷하게 화장을 하려고 신경 쓴다.	①	②	③	④	⑤
24	화장할 때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한 화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남들의 화장법에 좌우되기 보다는 나 나름대로의 화장법을 고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눈에 띄는 화장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7	비싸도 유명상표의 화장품이 내 자존심을 세워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화장은 나의 개성표현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 하십시오.

번호	내용	① 전혀 그렇 지 않다	② 그렇 지 않다	③ 그저 그렇 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남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타인이 볼 때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대인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 하십시오.

번호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 지 않다	③ 그저 그렇 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 자신 스스로를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의 특징에 대한 나의 반응이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원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의 욕구나 바라는 것을 잘 깨닫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많은 관심과 따뜻한 정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에 대해 나는 나 자신을 쉽게 잘 표현하고 터놓고 생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사람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호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잘 맞지 않을 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느낌을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관심사를 나누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표현하는 긍정적인 느낌을 믿고 받아들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표현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과 맺고 싶은 인간관계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1	귀하의 연령은 ?	① 40대 ② 50대
2	귀하의 결혼 상태는 ?	① 기혼 ② 미혼 ③ 별거/이혼 ④ 배우자사망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	① 초등학교 중퇴이하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이상
4	귀하의 직업은 ?	① 서비스직 ② 회사원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무직 ⑥ 공무원 ⑦ 전업주부 ⑧ 기타
5	귀하의 한 달 평균 수입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50만원 미만 ③ 150~200만원 미만 ④ 200~250만원 미만 ⑤ 250~300만원 미만 ⑥ 300~350만원 미만 ⑦ 400만원 이상
6	귀하는 한 달 평균 화장품 구매비용이 얼마 인가요 ?	① 1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미만 ③ 20~30만원 미만 ④ 30~40만원 미만 ⑤ 40~50만원 미만 ⑥ 50만원 이상
7	귀하는 현재 갭년기라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요
8	귀하는 폐경을 경험 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9	귀하의 자녀는 ?	① 유 ② 무